傘下支部動靜

▲協會本部

1、協會定款및 諸規定集 발행 : 협회는 지난 제23次 정기총회 및 92년 제2次 理事會에서 一部 改定通過된 分事務所規定및 其他 규정 등을 묶어 定款및 諸規定集으로 하여 全國산하 分事務所에 配付하기로 하였다。이 規定集은 新規로 承認되는 各級所長들에 對한 제반기능과 업무절차를 조기 숙지시킴과 동시 차질없는 업무 수행을 돕는데 시급히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계획보다 앞당겨 발행하게 되었다고 한다。

2、제3차 中國시찰 訪問계획 유보 : 협회는 당초 1、2次 시찰방문의 目的과 같이 今年에도 8月中에 실시할 豫定이였으나 對內外的인 경제여건 조성에 부응하는 뜻에서 동참자들의 사전 양해하에 今年 3次 계획은 일단 유보하기로 결정한바 있음으로 희망신청한 회원들께서는 널리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3、록생회를 支部會議로 개편계획 : 지난 82년도에 협회산하의 단합과 會勢伸張을 위하여 支部산하친목회로 조직 발족된 록생회(綠生會)는 그동안 조직확대, 회원권익보호, 회원상부상조, 소득증대 등 많은 업적을 남긴바 있으나, 반면 支部산하 조직활동에 二元化的인 움직임등 잡음이 빈번한바 있고 시대의 변천등을 감안하여 8月 첫주 회장단 회의에서 이를 깊이 논의하여 支部會議로 改編통합하기로 하였다。이 支部회의로의 통합 개편 方針은 8月中으로 支部 및 各級分事務所에 示達될 것으로 豫定되고 있아오니 사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하 支部會議 : (생약보 164호부터 록생회를 支部회의로 개칭함)

1、忠北道 支部會議 : 지난 7月31日 이광후 총무주관으로(前 지부장 이종철씨 별세로 공석)산하 분소장을 소집한 가운데 정례 支部會議를 개최하고 당면문제를 협의한 끝에 다음과 같이 각각 의결 및 건의한 바 있다。

● 공석중인 支部長后任에 『李志大』所長(진천군소장)을 승격 추천하여 조기 任命조치토록 本部에 건의 ※다음 : 李支部長人事 소개。

● 生産농민보호 및 주요국산생약재 보호 次元에서 외국산 수입금지 대책을 강구하자。

● 주요생약재 『주산지』를 명시보호 하는 제도를 추진하자。

※忠北道 李支部長 人事말씀

◇李志大 支部長

저에게 이 어려운 자리를 맡겨 주시니 두어깨가 무거워집니다。다만 주어진 責任은 誠과 熱을 다하여 所信껏 最善을 다하고저 합니다。于先 道德的 側面에서 信賴感을 주는 심부름꾼으로 中央會와 道支部사이의 橋梁役을 내실있는 方向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그리하여 忠北道支部 傘下의 各所長 한분 한분으로부터 믿음을 주고 또 믿음을 받는 심부름꾼이 되어 곧 이 믿음의 힘이 中央會로 모아질때 會員所得增大를 위한 一翼의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서 얻은 相互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他道支部보다 한걸음 앞서 가는 모양새 좋은 忠北道의 生藥分野체제를 再編하면서 道民保健向上에 奇與하도록 일하여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私心없는 公益團體의 심부름꾼이 되어 보겠습니다。個人의 利益만을 追求하고 누가 누구를 미워하는 따위의 그릇된 삶을 살기 보다 바른 삶을 살기 爲하여 勞力하면서 항상協助하는 봉사자세를 기본으로 하여 共生共存의 길로 忠北支部를 한 次元 높은 곳으로 인도해 보도록 일하여 보겠습니다。

끝으로 수입全面開放이라는 이 時代的 흐름을 農事를 天職으로 삼고 살아왔고 또 살아가야 하는 우리 生藥栽培農家와 함께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온갖 智慧와 슬기를 함께 모아서 대처해 나가도록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忠北支部산하 각급 所長 任들께서는 이러한 本人의 所信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인사를 가름하고저 합니다。감사합니다(李志大 드림)

2、전남도 支部會議 : 지난 8月20日 정형모支部長은 정례회의를 순천에서 소집하고 기간중 이 지방 생약재 유통현황에 대한 정보를 상호 교류하면서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한바 있다。

이날 會議에서 논의된 사항을 집약하면 다음과 같다。

※검토및 토의사항

● 최근 유통되고 있는 밀반입 생약재에 대한 공동 대처방안 강구 요망。

● 재배 생약에 대한 가격조작행위에 대한 협회 차원으로서 대책 강구 요망。

● 작약 생산량이 작년보다 증가(약35%)된 유통전망에서 이의 적절한 소비조절책 강구 희망。

● 치자등 국산품수출길 확대 희망。

● 공판장장들의 정기총회 참가권 부여 문제 건의 등이다。

약용작물주산단지지정고시

대상품목 : 주요재배 약용작물중 황기등 11개품목

지정단지수 : 강원 정선군 등 25개 시·군

농림수산부 잠업특작과 (☎503-7253)

○농림수산부는 8월 4일자로 주요 재배 약용작물중 국내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거나 수출이 유망한 황기등 11개 품목인 품목에 대해 강원도 정선등 25개군을 주산단지로 지정 고시하였음。

○주산단지의 지정 목적은 약용작물을 지역특화작목으로 육성하여 농가소득작목으로 정착시킴과 아울러 재배면적 조정을 용이하게 하여 수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하는데 있음。

○이번에 지정한 주산단지는 올해 4분의 1기에 각도지사로부터 신청받은 희망지역에 대해 농촌진흥청 전문기술자의 기상, 토양등 재배여건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에 따라 품목별로 재배가 적합한 지역이 선정되었음。

○앞으로 농림수산부는 주산단지를 중심으로 약용작물 우량품종 보급, 신재배기술 지도 및 생력재배 기계개발 보급등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킬 것이며, 상품성 제고와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조제, 가공시설 지원도 확대할 것임。

○또한 농림수산부에서는 주산단지로 지정된 지역의 재배농가들에게 작목반 조직을 권장하고 공동생산판매와 과잉생산 우려시에는 스스로 재배면적을 조정토록 유도하므로써 지역특화작목으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책을 추진할 계획임。

고 시 내 용

◉ 농림수산부 고시제1992—34호

농수산물유통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약용작물 주산단지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1992년 8월 4일

농림수산부장관

○ 약용작물 주산단지 지정내역

품목명	단지수	단 지 지 정 내 역
의이인	1	연천
당 귀	7	정선, 평창, 인제, 삼척, 태백시 봉화, 울진
황 기	3	정선, 삼척, 제천군
시 호	1	정선
오미자	1	인제
구기자	2	청양, 진도
지 황	2	서천, 정읍
작 약	3	임실, 의성, 거창
산수유	1	구례
산 약	3	안동, 영풍, 진양
천 궁	1	울릉

양파

<독자투고>

양파는 마늘과 같이 수확하는데 잎은 파와 같으나 먹지 못하고 가을에 심어서 이듬해 뿌리 부분의 덩이줄기는 마늘과 같이 먹는데, 맵고 톡쏘는 맛에 매력을 느낀다。

작물중에서도 양파만큼 파동이 심한 것도 없을 것이다。많이 재배하여 풍작이면 인건비도 충당하기 어려워 논, 밭에 그냥 내버리는 것이 양파인가 하면, 또 물량이 딸리며는 금값 대우를 받는 것이 또한 양파인데, 식당에 가면 김치와 양파가 식탁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올해는 풍작이라 양파가 천덕꾸러기중에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고 있다。

외국산 농산물이 물밀듯이 수입 되는데다 양파가 대량 생산되고 있는데서 더욱 천대를 받고 있지만 본시 양파는 쓰이는 곳도 많고 약효도 여러가지 있기에 소개하고자 한다。

양파는 나리과에 딸린 여러해살이 풀로서 지하인경(地下鱗莖)은 구형(球形) 또는 편구형(偏球形)이며, 잎은 가늘고 통통하며 길다。중공원주형(中空圓柱形)이고, 꽃줄기는 30~70㎝쯤 되고, 줄기의 꼭대기에는 흰색 또는 담백색의 꽃이 산형 화서(산形花序)로 피며 인경에 매운맛과 전분이 있어서 식용으로 쓰이고 있다。양파꽃은 여름에 핀다。

원산지는 페르시아, 이란이고, 우리나라에는 개화기이후에 전해졌으며 신진대사를 높여 젊은이에게는 미용에, 중년기에는 건강식품으로 좋다。

그런데 양파에는 뜻밖에도 여러가지 약효가 있다。

아기가 경기를 일으킬때 양파를 잘라서 입에 대주며는 씻은듯이 갈아 앉으며, 코가 막힐때 즙을내 금씩 마시면 트이고, 충치로 인해 이가 아플때는 양파를 갈아서 충치 안에 넣어 두면 통증이 멎기도한다。마음이 긴장될때 양파를 생것으로 먹으면 조금 안정되기도 한다。

감기약을 써도 감기가 낫지 않을 때에는 양파 6백그람과 쇠고기 3백그람을 함께 넣어 국을 끓여 간을 맞추어 식사때마다 부식으로 먹으면 효과를 볼 수 있다。

신경의 피로가 많고 음식을 심하게 가려 먹는 사람에게는 머리에 비듬이 많이 생긴다。이 머리 비듬을 제거 하려면, 머리를 감고 말린 다음 양파를 모발 밑에 문지르면 7~10일이 지나면 비듬이 없어지며, 또 한 양파를 갈아 즙을 거적에 싸서 머리피부에 탁탁 가볍게 두들겨 주며는 하루쯤 지나 머리를 감으면 효과가 좋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페인트칠을 하고난 뒤 냄새가 많이 날때는 양파를 조개어 몇개씩 나누면는 냄새가 별로 나지 않는다。

옷에 김치국물이 묻었을때는 그 부분을 물에 담가두었다가 국물을 뺀 다음 양파를 잘게 썰어 즙이 되도록 다져서 물이든 부분의 앞뒤에 골고루 펴 바른뒤 하루쯤 있다가 비누로 씻으면 깨끗이 없어지기도 한다。

그리고 양파를 식초로도 활용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쓰다남은 양파를 다져서 넣은 병에 넣어 식초를 부어두면는 일주일정도 지나면 풍미로운 식초가 된다。이것은 물고기 튀기는데 사용하며는 좋은 음식의 맛을 내어 더욱 향기로운 맛을 낼 수 있다。

그리고 양파는 우리의 식탁에 있으면 고추장에 찍어 먹는 것도 더욱 감미를 주어 좋은 것이다。

우리의 식성도 시대의 흐름과 값에도 민감한 것을 느낄 수 있다。

요즈음 우리의 농축산물이 그리 많지도 풍부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값은 어찌된 일인지 오를 줄 모르고 내리기만 하니 농사를 짓는 한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 금할길이 없다。우리의 농축산물은 우리 농업인과 열이 믿음의 정성을 쏟아 스며있고 우리의 풍토에 알맞는 만큼 우리가 애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일인지 외국산 농축산물이 물밀듯이 들어 오고 있으니 그것을 막을 길은 오직 우리 농산물을 애용하고 특성을 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농축산물 값이 오르고 비싸며는 잘 사고 잘 먹지만 값이 내리며는 잘 먹지도 않고 잘 사지도 않는것을 느낄 수 있다。

그 중의 한가지가 양파인데 헐값일때 많이 사 보관하여 두었다가 반찬거리가 없고 감기가 많은 겨울에 사용하며는 좋지 않을까 생각되어 권하고 싶다。

우리 모두가 풍부한 우리의 농산물을 잘 활용 한다며는 국민의 건강증진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본다。

(경북 경주군 내남면 망성1리 886 T(0561)43-3282)

권 순 채